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5. 2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獨, 헤즈볼라 자금지원 단체 3곳 불법 규정**
 - 5.20 獨 내무부 장관은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자금을 지원한 3개 단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 수색 활동 중이라고 발표
 - * 獨 정보국은 자국내 헤즈볼라 회원과 지지자들을 1,000여명 정도로 추정
- **네덜란드, 흉기난동(5명 사상) 사건 테러 가능성 수사**
 - 5.22 네덜란드 경찰은 지난 21일 암스테르담 중심가 페르디난드 볼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(사망 1, 부상 4)에 대해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
 - * 사법당국은 암스텔벤 출신의 용의자를 사건 직후 현장에서 긴급체포

미주

- **美 하원, '아시아계 증오 범죄 반대법' 처리**
 - 5.18 美 하원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△증오 범죄 전담 인력 법무부 배치 △인종차별적 언어폭력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'아시아계 증오 범죄 반대법'을 통과 처리
 - * 「낸시 펠로시」 하원의장은 “우리는 이 법 통과로 고무된 단결력을 토대로 또 다른 어려움도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언급
- **美 법무부, 국가 기밀문서 유출혐의 FBI 분석관 기소**
 - 5.22 美 법무부는 FBI 마약·인신매매 관련 부서에서 정보분석관으로

근무하던 캔자스시티 수사본부 소속 「켄드라 킹스버리」(49세, 여)를 대테러·방첩 자료 등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
* 同人是 '04.6월 FBI 입직 후 '17.12월 정직 전까지 약 13년간 근무

아·태평양

○ 대만 법원, 해적 사살 명령 중국 선장 징역 26년 선고

- 5.19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'12년 아프리카 인도양에서 배가 난파되어 조난중인 해적 4명이 투항 의사를 밝혔으나, 사살지시를 내린 윈양어선 선장 중국인 「왕핑위」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6년형 선고
* 선원이 同 장면을 촬영해 '14년 인터넷으로 유포, 대만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(ICPO)의 수사 의뢰를 받고 '20.7월 자국 가오슝港에 입항한 同선장을 체포

○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차세대 보안검색 기술 개발 예정

- 5.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 테러예방을 위해 '테라헤르츠(THz)파^{*}를 이용하여 신발과 모자 탈의 없이 비금속 재질의 위험물질도 감지할 수 있는 보안검색 기술 개발 예정
*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로 전자파 에너지가 낮아 인체에 무해

○ 국회,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관리강화 추진

- 5.24 백종헌(국민의힘)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(보툴리눔 독신·탄저균 등)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「감염병예방법^{*}」 개정案 발의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중 동

○ 터키, PKK(쿠르드 노동자당) 연계 용의자 47명 체포

- 5.24 터키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 대테러작전을 통해 PKK^{*}와 연계된 용의자 47명을 체포하였으며, 이 중에는 쿠르드계 야당인 '인민민주당(HDP) 소속 주지사 등 지방 관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
* '78.11월 터키 동남부 '디아르바키르'에서 결성된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단체

다게스탄공화국*, '검은 과부(Black Widows)' 자행 자폭테러

* '91년 舊소련 해체시 자치州에서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으로 편입, 러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(30개 이상 언어), 국민 종교의 90%가 수니파 이슬람

- '13.5.25. 오전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에 소재한 경찰서 인근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
- 수사결과 혐의자는 「알리에바(25)」라는 여성으로 이슬람 반군이었던 두 명의 남편이 연방 보안군에게 연이어 사살되자 일명 '검은 과부'가 되어 복수차원의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
 - * 혐의자는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수류탄과 쇠구슬을 장착한 폭탄 벨트를 몸에 두르고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여 자폭
- 한편, 다게스탄공화국은 △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해온 국내 이슬람 저항세력의 준동 △ 인접국 체첸공화국에서 정부의 자국내 반군 진압작전 강화로 유입된 불순 무장세력의 증가로 테러가 빈발
 - * 다게스탄공화국에서는 同月에만 3건의 연쇄테러가 발생, 4명 사망·40여명 부상

< 검은 과부(Black Widows) >

- 2000년대 초 北카프카스 지역에서 양성되기 시작한 여성 테러범들을 지칭, 러시아에서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체첸 여성테러범을 지칭
 - 남편 등 가까운 가족이 러시아군에게 생명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적개심을 품게 된 여성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'과부'라고 호칭
 - * 체첸계 분리주의자들은 과부가 된 이슬람 女신도들에게 "남편이 없는 여자는 짐일 뿐이다. 남편은 네가 지은 죄로 죽은 것이다"며 자살 폭탄테러를 종용
 - 스스로를 '샤히디(순교자)'라고 부르며, 체첸 반군과 함께 인질극 또는 자살 폭탄테러 감행
- (주요테러)
 - '10.03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 자폭테러(사망 40여명, 부상 90여명)
 - '11.03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항 자폭테러(사망 35명, 부상 180명)
 - '13.10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시내버스에서 자폭테러(사망 7명, 부상 30여명)
 - '13.12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기차역에서 자폭테러(사망 17명)